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암초

2025년 23개항 2202척 계획 대비 13% 완료

사업 지지부진에 완도항 계류장 철거 결정

전남도가 다도해 요트 레저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요트 마린 실�크로드'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애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심여원을 들여 이미 구축된 일부 요트계류장이 파손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아일랜드로드, 완도항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로드, 여수 웅천항을 중심으로 한 엑스포로드, 영산포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로드 등 4곳에 오는 2025년까지 모두 845.8km에 달하는 '요트 마린 실�크로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목포~완도~보성~여수를 잇는

23개항에 들어서는 마리나는 2202척(5200억원) 개발계획 규모로 현재 290척(13%) 완료됐다.

현재 목포(57척), 여수 소호(50척), 여수 이순신(150척), 보성 비봉(24척)항이 개발이 완료돼 운영 중이다.

여수 웅천(II)항은 300척 규모의 거점형마리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준공한 완도항 요트계류장이 수차례 시설물 파손이 잇따른 뒤 급기야 철거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리사무소 10억원, 계류시설 16억원 등 총 26억원이 들어간 요트계류장은 36피트급 요트 9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지만, 파도와 바람을 막는 시설 없이 접안시설만 설치돼 매년 태풍이 불때면 파손이 잇따랐다.

'아름단지'가 된 요트계류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시공, 사업비 방만운영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이 시설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인근에 조성 예정인 마리나시설로 이전

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가 최근 몇년 사이 '요트 마린 실�크로드'를 통해 다도해의 절경을 요트에서 즐기는 여형상품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 자체가 되레 후퇴하는 양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파손이 잇따른 요트계류장을 인근에 조성 예정인 요트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면서 "여수 웅천항은 사업계획이 확정돼 거점형마리나로 개발할 계획이며 여수 초도, 연도 진도 서거차도, 신안 전장포, 우이도 등은 내년 국비 방안운영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봄을 기다리는 목련 16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에서 목련 꽃봉오리에 돌아온 솜털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민간공원 파동' 광주교육청 청사 이전으로 불똥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 선정 파동이 광주 시교육청이 숙원 중 하나인 청사 이전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광주도시공사가 석연철은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바람에 공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도심공원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고, 이전작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발표된 뒤 청사 이전작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나섰다.

5개 공원 6개 지구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광주도시공사)이 사업권을 따낸 중앙공원 제1지구를 최우선을 판단했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공공기관 간 협의 용이성 등이 두루 고려됐다.

시 교육청은 청사 부지 2만5000㎡, 특수학교 부지 1만5000㎡ 등 4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17년 7월, 도시공사가 소유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 4만3685㎡(1만5000평) 매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번째 협상인 셈이다.

그러나 첫 시도는 도시공사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없이 예산(880억원 추산)을 책정하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고자료에 신청사 예정 부지를 명시하면서 뒤달이 일어 무산됐고, 이번엔 협상파트너인 도시공사가 물연 우선협상자 지위를 지진 받

내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8.8점으로 총점 84.8점을 기록한 (주)한양을 8.8점이 넘는 점수차로 따돌렸으나 이른바 '땅장사 논란' 등이 일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된 지 4일 만에 사업권을 포기해 공공성 포기, 특정 업체 갈취주기, 시민평가 무력화 논란이 일었다.

도시공사를 상대로 불발 협상을 추진해온 교육청으로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꼴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중앙공원 일부 구획 조정을 조심스레 요구하고 있다. 전남 교육청을 방문한 시청 고위 간부에게도 그 같은 뜻을 전달했다.

조인호 기자

케냐 나이로비 테러 사망자 최소 15명

케냐 나이로비에서 총격과 테러 공격으로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케냐 당국이 모든 건물이 이제 안전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족들은 아직도 건물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넬리리는 이름만 밝힌 한 여성은 "밤금 전 오빠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받았으며 "오빠는 건물 안에 있으며 10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공격을 받은 두시트르 호텔 옆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왜 모든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이로비에서는 프레드 마티양기 케냐 내무장관이 테러 현장이 이제 안전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성이 계속 들리고 있다.

캘빈 케리호라는 남성 역시 건물 안에 갇힌 사촌과 연락이 됐다고 말했다. 그의 사촌은 테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나이로비 호텔에 대한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말리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알샤바브는 지난 2013년에도 나이로비에서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케이프 몰 테러 공격을 저질렀었다. 또 2015년에도 케냐의 가리사 대학을 공격해 147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케냐 경찰은 익명을 전제로 15구의 시신이 시체안착소로 실려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하다 통신을 통해 4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호텔 식당 1층과 2층 사무실에서 시신들이 목격됐지만 몇 구나 되는지 세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호텔 정문 인근에서 5구의 시신을 보았다고 전했다.

LA교사파업 첫 날, 학교들 1500만 달러 손실

로스앤젤레스의 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첫 날인 15일(현지시간) LA교육구안의 학교들이 입은 손실액이 1500만달러(168억 4800만 원)에 이르고 오스틴 뷰트너 교육청장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15일 교사파업 첫 날 학교에 등교한 학생 수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결석에 따른 이 구역내의 주정부 보조금도 250만 달러나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구청은 파업중인 교사들에게는 봉급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날 1000만 달러가 절약되어 결국 이 날 하루 로스앤젤레스의 학교들이 입은 손해는 1500만 달러가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15일 파업후 거리로 나선 로스앤젤레스의 교직원들은 총 3만2000여이 남았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고 교직원에 대한 대우와 봉급인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A에서 교사들의 파업이 일어난 것은 30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파업은 몇 주일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어온 LA 교사 노조와 LA지역 교육청 연합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했다.

중창어4호, 달에서 식물키우기 성공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4호가 달에 싣고 간 씨앗들 가운데 면화씨 하나에서 달 최초로 싹이 났다고 중국국가항천국이 15일 밝혔다.

지난 3일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한 중국 달 탐사선은 생물과학 실험을 위해 달에 지구로부터 가져간 면화 씨앗을 뿌렸다.

이번 실험을 이끈 중칭(重慶)대학의 세경신 교수는 달에 착륙한 창어4호의 착륙기 위루(玉兔)에 실린 봉 속에 면화와 평지 씨, 감자, 애기장대 씨 등과 함께 과일파리 알과 약간의 효모 등이 실려 있어 작은 생물권 실험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창어4호가 보내온 사진에 면화가 싹이 터 자라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식물들은 모두 싹을 틔우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창어4호에 실린 봉은 특수 알루미늄으로 제작했으며 길이 198mm 지름 173mm 무게 2.6kg으로 봉 속에 수분과 토양, 공기와 함께 2개의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고 열통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창어4호는 카메라가 촬영한 170장이 넘는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해 왔다고 중국국가항천국은 말했다.

면화 씨에서 싹이 터 자라기 시작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주에서 식물 재배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획기적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건강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